

# 억압적 정치체제와 급진적 문예미학의 상관성 연구<sup>1</sup>

- 1980년대 한국 '운동+문학'의 담론·주체 연구

오창은(중앙대학교 교양학부대학 교수, 문학평론가)

## 1. '운동+문학'의 문예미학적 맥락

권력을 장악한 유력자(有力者, major)들은 폭력적 통치체제를 통해 약소자(弱小者, minority)들의 '순종'을 기대한다. 하지만, 약소자들은 '순응하면서 저항'하는 이중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정치권력이 행하는 억압은 목적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한에서만 합법적이다. 그 정당성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 억압은 이데올로기적 형태에서 폭압적 형태로 변형된다. 그런 의미에서 폭압적 억압은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는 '위기적 징후'이기도 하다.<sup>2</sup> 부당한 정치권력은 정당성에 기반한 헤게모니를 장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폭압적 국면에 도달하고 만다. 그것은 마치 가면을 바꿔 씌으로써 다른 존재가 되려 했다가, 오히려 맨 얼굴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억압적 정치체제 아래에서 저항적 주체들은 특정 사회의 역사적 국면을 객관적이면서도 과학적으로 분석(이른바 사회구성체론)하려 노력한다. 거시적이면서도 구조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

<sup>1</sup> 본 논문은 필자가 쓴 『제3세계 문학론』과 『식민주의 비평』의 극복」(『우리문학연구』 제24호, 우리문학회, 2008.6.)과 「'1980년대 노동소설에 대한 일고찰」(『어문연구』 51, 어문연구학회, 20006.8)에 기반해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sup>2</sup> 루이 알튀세르, 김동수 역, 『아미앵에서의 주장』, 숲, 1991, 88~94면 참고.

이러한 접근법은 사회의 모순 분석, 계급·계층 분석, 사회변혁론과 결부되어 있다. 특정 사회구성 내에서 모순구조 속에 있는 계급·계층 간의 역학관계를 파악하고, 진보적 역사발전 가능성을 확대하려는 것이 ‘사회구성체론과 변혁주체론’이었다. 이러한 변혁론은 구조적 조건에 의해 주체가 규정된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어, 사회 구성원의 개별적 욕망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다. 여기서 ‘욕망’은 ‘생산하는 힘으로서의 욕망이며, 지배를 벗어나는 원동력으로서의 욕망’을 지칭한다.

주체의 역능으로서의 욕망은 어떻게 길들여지면서 억압당하고, 순치된 욕망은 어떤 방식으로 다시 주체를 억누르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혁명적 욕망의 가능성은 어디서 재생될 수 있는가? 1980년대 ‘운동+문학’을 분석하면서 연구자들이 흔히 전제하는 통상적 태도가 있다. 그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억압’에 대해 주체가 반응했다는 가설이다.(태초에 억압이 있었다. 그리고 그 억압은 역사화돼 있다.) ‘운동+문학’도 ‘억압에 대한 공유된 경험을 통해 생성된다’는 믿음이 여기에서 생겨난다.<sup>3</sup>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1980년대 ‘운동+문학’ 새롭게 맥락화할 필요가 있다. 논의의 결론이 다시 ‘억압이 존재했다’는 시대인식으로 귀결될 지라도, 주체의 역동적 힘은 ‘자율성’을 전제로 배가될 수 있다고 본다. 사회적 실천은 억압적인 지배권력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주체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자율성을 주장하는 주체에게서 나온다. 반응적 주체보다는 자율적 주체를 옹호할 수 있을 때, 일상과 혁명, 지배와 저항의 관계가 새롭게 구축될 수 있다. 자율적 주체라는 문제설정은 ‘운동+문학’의 ‘정체성’과 ‘현장성’,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의 ‘운동성’을 문학담론과 작품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기본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문학작품은 시대적 감수성을 반영하기도 하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감수성의 형성하기도 한다. 우리는 감수성 혹은 감성에 대해 정서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곤 했는데, 감수성의 패턴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길들여진 욕망, 혹은 학습된 감수성이 문제가 된다. 대중의 감성

---

3 영국 구좌파라고 할 수 있는 E.P. 톰슨의 방대한 작업이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 있다. (에드워드 파머 톰슨, 나종일 외 역, 『영국노동계급의 형성(상,하)』, 창작과비평사, 2000.)

이 어떤 특정 형식에서 반응한다면, 거기에는 '억압된 것에 대한 무의식적 해방의 욕망'이 자리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은 1980년대를 관류하는 '문학+운동'의 문예미학적 맥락, 그리고 운동적이면서도 계급적인 인식의 심화와 텍스트 생산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이를 통해 '운동+문학'으로서의 1980년대 문학의 급진성이 어떤 구조적 특이점을 보이는 지를 밝히려 한다. 이 논문은 문학이 억압적 정치체제에 대응하는 '문예미학적 양식'을 '제3세계 문학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핌으로써, 현실과 문예미학의 상관관계의 한 유형을 밝히려 한다. 더불어 1980년대 노동소설을 통해 '운동+문학'의 실제 텍스트의 미학적 성과를 가늠할 것이다.

## 2. 서구적 보편론에 대항하는 '제3세계 문학론'

한국에서 '제3세계 문학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였다. '제3세계 문학론'은 한국적 비평담론의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 문학이 스스로를 주변부적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체적 태도를 확보한 계기가 되었다.

우선, '제3세계 문학론'이 제기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시대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첫째, '제3세계 문학론'은 4.19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민족문학'이 실천적 힘을 획득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한국사회는 1960년 4.19를 거치면서 문학담론의 '사회성'과 '실천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갔다. 『한양』 『청맥』 『창작과비평』 『상황』 등을 중심으로 많은 비평가들이 '리얼리즘 논의'와 '민족문학론'을 '사회적 실천'의 영역에서 의미화했다. 민족문학론이 리얼리즘 미학체계와 결합한 것은 분단이라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이 작용한 결과이다. 민족문학론이 지닌 개별성/특수성은 세계체제와의 관계 속에서 다시 사유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러한 고민이 확장되면서 '민족문학론'의 입장에서 '제3세계 문학론'에 대한 조심스러운

탐색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세계자본주의의 하위체제로 진입하기 위해 남한의 정치권력이 ‘고도성장’을 주도하면서 ‘억압이 일상화’된 시대적 상황에 주목하게 된다. 재벌 중심의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은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국가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을 악화시켰다. 이는 도시집중 등을 통해 과잉 공급된 도시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악화시켰다. 반공이데올로기를 통한 동원체제,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 한국 지배계층 민족주의 담론 등은 ‘폭력의 내면화’를 부추기는 요인이었다. 1974년 11월 18일,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창립으로 작가들의 반유신 민주화 운동이 가열되었고, 민중의 저항도 거세 1979년에는 ‘YH사건’과 ‘부마항쟁’ 연달아 일어났다.<sup>4</sup> 더불어 1980년 광주민중항쟁의 발발에 이은 전두환 군사정권의 출현은 한국문학계에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 한국사회의 위치를 가늠해야 하는 문제의식을 던져주었다.

셋째, 1970년대부터 국제 질서 속에서 제3세계의 부상이 두드러졌고, ‘반제’ ‘반식민주의’와 더불어 ‘식민주의 극복’의 요구가 세계적으로 주요한 화두였다. 제3세계 비동맹회의는 1947년 3월 인도의 뉴델리에서 개최된 ‘아시아 관계회의’를 시초로, 1955년 4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회의’에서 ‘반동 10원칙’을 채택되면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시작했다.<sup>5</sup> 특히 1975년 8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린 비동맹제국 외상회의에 남·북한은 비동맹제국 가입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남한은 미군주둔·월남전 파병 등의 이유로 가입이 부결되고 북한은 가입된 바 있다. 국제 관계에서 제3세계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1970년 말부터 정치학계와 사회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sup>6</sup> 이들 연구성과들은 문화예술계에도 ‘제3세계’

---

4 강만길, 『고쳐 쓴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1994, 240~241면.

5 하경근, 『제3세계 정치론』, 한길사, 1983, 38~40면.

6 이에 대한 논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김성용, 『제3세계와 비동맹운동』, 고려서적주식회사, 1978.

김태동, 『신국제경제질서 - 제3세계의 반란』, 일간 「내외경제」사, 1978.

김학준·박현재 외, 『제3세계의 이해』, 형성사, 1979.

하경근, 『제3세계 정치론』, 한길사, 1980.

윤근식 편, 『현대정치의 정치발전적 분석』, 법문사, 1980.

변형윤·김대환 편역, 『제3세계의 경제발전』, 까치사, 1980.

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쳐 1980년대에 이르러 '제3세계 문학론'이 활발히 전개됐다.

넷째, 민중적 입장에서 제3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은 미국내 흑인의 지위에 관한 문제와 프란츠 파농에 대한 소개, 그리고 무엇보다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에 대한 재인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혁명적 사제인 까밀로 토레스나 해방신학의 선구자 구띠에레스의 소개는 분도출판사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뤄져 왔다.<sup>7</sup> 또 이들에 관한 저서의 소개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남한의 관심이 증가했고, 더불어 '제3세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프란츠 파농과 말콤 엑스의 저작이 집중적으로 소개된 시기도 1970년대 중후반과 1980년대 초였다.<sup>8</sup>

마지막으로 김지하와 연관된 문학담론의 활성화를 꼽을 수 있다. 정치적 억압 상태에서 김지하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인해 사형을 언도 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았다가, 1975년 일제 석방조치로 풀려났다. 그러나 다시 1975년 반공법 위반으로 수감되었다. 이 와중에 김지하는 제3세계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 아시아·아프리카작가회의의 로터스상 특별상을 1975년 6월에 수상했다. 당시 제3세계 문학과 김지하의 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고, 문단에서는 김지하를 '노벨문학상' 수상 후보로 추천하기 위한 노력을 이뤄지기도 했다.<sup>9</sup> 아시아·아프리카 작가회의가 수여하는 로터스상은 제3세계 진영에서 한국문학을 고평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졌고, 더불어 아시아·아프리카 문학에 대한 관심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

---

엄홍철 편저, 『제3세계와 종속이론』, 한길사, 1980.

7 이와 관련된 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헬더 까마라, 김윤주 역, 『평화혁명』, 분도출판사, 1974.

헬더 까마라, 이흥근 역, 『황무지를 옥토로』, 분도출판사, 1975.

부루키르 저, 이해찬 역, 『툼 헬더 까마라』, 한길사, 1979.

구띠에레스, 성임 역, 『해방신학:역사와 정치와 구원』, 분도출판사, 1977

8 프란츠 파농, 박종렬 역,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 광민사, 1979.

프란츠 파농, 김남주 역, 『자기의 땅에서 유배당한 자들』, 청사, 1978.

알렉스 헤일리, 김중철·이종욱·정연주 역, 『말콤 엑스』, 창작과비평사, 1978.

R.자하르·김중철, 최정섭 역, 『프란츠 파농 연구』, 한마당, 1981.

9 백낙청, 「한국문학과 제3세계문학의 사명」,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II』, 창작과비평사, 1985, 272 ~ 282면 참고.

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촉발된 '제3세계 문학론'에 대한 관심은 한국 문학내에서 재구성되기에 이르렀다. 제3세계의 특징인 식민지 경험, 경제성장 우선주의의 폐해, 권위주의적 정치체제가 파생시키는 파시즘적 억압 등을 재인식하면서 한국사회 현실과 동질성이 있음을 인식해 나갔다. 문학예술 영역에서도 '사회인식의 심화'와 한국문학 주체적 자기 이론의 정립을 위한 저항의 담론으로 구체화됐다. 또 서구중심의 보편론에 빠져 있는 문학관이 점차 '한국사회에 대한 재인식을 통한 내적 체계'를 형성해 나가 1980년대 한국문학의 한 특성인 '저항성'을 강화했다.

제3세계 문학론은 한국문학이론의 형성과정에서 제기된 문학담론이다. 한국문학이론의 주체성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제3세계 문학론이 담론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 중요한 담론적 특징을 백낙청과 김종철의 평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각 논자들은 자신의 입론에 입각해 제3세계 문학론을 논하고 있지만, 그들의 논의는 제3세계 문학론에 1980년대 평론의 인식지형을 대변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비평담론의 '식민주의 극복' 과정을 예시해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국비평담론에서 '제3세계 문학론'은 '민족문학론'과 관계 속에서 움트고 성장했다. 그러므로 민족문학론을 통해 '제3세계 문학론'을 재구성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 될 수 있다. 민족문학론은 "자신 있게 우리 나름의 문학을 창조해 나가고 아울러 서양과 제3세계 나라들의 온갖 문학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만은 이룩"하려는 포석이었다.<sup>10</sup> 바로 이 부분에서 백낙청은 제3세계 문학은 민족문학이자 민중문학이라는 논의를 전개했다. 한국인이 한국어로 써내는 글이 모두 '민족문학'일 수 없다는 것이 민족문학론의 기본주장이듯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어떤 문학 역시 그것이 '제3세계'에 속하는 나라에서 생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제3세계문학'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백낙청이 보기에, 제3세계 문학의 핵심

---

10 백낙청, 「제3세계와 민중문학」, 『창작과비평』 1979년 가을호, 창작과비평사, 1979, 48면.

은 ‘민중’의 기본적 욕구를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문학이라는데 있다. 그는 “세계를 셋으로 갈라놓는 말이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로 묶어서 보는데 그 참뜻이 있는 것이며, 하나로 묶어서 보되 제1세계 또는 제2세계의 강자와 부자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민중의 입장에서 보자는 것”이 제3세계 문학이라고 강조한다.<sup>11</sup>

한국문학을 주제적으로 인식하려는 백낙청의 노력은 ‘우리 나름의 문학’ 혹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에 대한 열망을 피력하게 된다. 그 근거로써 한국적 특수 현실인 ‘분단’이 제기되고, 리얼리즘 방법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민족문학론을 재구성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문제는 한국사회의 분단이라는 특수성과 보편주의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이다. 제3세계 문학론이 간단치 않은 관계를 형성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에서이다. 제3세계 담론은 서구의 보편주의와 갈등하는 과정에서 주제성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서구적 합리성, 즉 근대성 담론이 유일한 미래처럼 간주되는 제3세계에서 서구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주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문학 영역에서 ‘제3세계 문학론’으로 결실을 맺었던 것이다. 그런데 백낙청은 ‘제3세계 문학론’에서 ‘민중’을 핵심적으로 제기하면서 휴머니즘 일반과 맞닿으려는 경향을 내비친다. 그는 “민중은 그들이 인간이라는 점에서 이미 소중하고, 소수 지배자·억압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들보다 단연코 훌륭하며, 땀흘려 일하고 자식 낳아 기르면서 인류의 살림살이를 지탱해왔다는 점에서 버젓이 역사의 주체로 역할해온 것”이라는 말한다. 이러한 언어 자체로서는 지극히 온당하지만, 이것이 문학의 보편적 가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3세계 문학론의 핵심적 논지로 이용되는 상황에 직면하면 혼란이 초래되고 만다.

제3세계의 특수한 정세에서 문학의 입장을 논하는 담론 영역에서 행해지는 언어와 문학의 일반적 가치를 논하는 언어가 동일하게 사용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제3세계 문학론의 핵심으로 ‘민중’을 설정한 것은 외견상으로는 무리없는 주장이지만, ‘제3세계 문학론’의 주요한 내

---

11 위의 책, 50면.

용으로 자리잡기에는 보편주의에 경도되어 있었던 것이다. 특정 국면에서 보편주의는 ‘서구적 합리성’과 맞닿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근대성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이름으로 세계화의 외곽에 존재하는 이들에게 폭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런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다양한 삶의 가치를 인정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제3세계 문학론’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것을 민중적 가치로 치환하는 것은 비약적 논의 전개이며, 양극체제 혹은 세계체제의 지배세력이 가하는 폭력에 적절히 대항하는 담론으로서 기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제3세계 문학론은 서구적 보편주의를 비판하면서 오히려 제3세계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것이어야 했다. 이것이 초기에는 보편주의에 대한 파괴로 비춰질 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대안적 근대를 향한 치열한 모색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 백낙청의 논의를 이어받고 있음에도 상당히 다른 이론적 포즈를 취하고 있는 김종철(金種哲)의 작업이 눈에 띈다. 그는 말콤 엑스<sup>12</sup>와 프란츠 파농의 생애와 이론<sup>13</sup>에 관심을 가지면서 서구 제국주의의 지식담론에 저항하는 작업을 지속해 왔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제3세계 문학론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의 작업은 「제3세계의 문학과 리얼리즘」(1982)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sup>14</sup>

김종철은 서구 산업문명의 상품소비적 사회체제에 강한 거부감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를 통틀어 가장 생생한 인간적 가치를 보여주며 활력에 넘쳐 있는 문화.예술은 서양이 아니라 제3세계적 인식에 충실한 세계 도처의 여러 민중과 지식인의 활동 속에서 볼 수 있다고 가치평가하고 있다. 서구의 문화.예술은 고립과 소외 자체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미학체제를 확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제3세계적 관점이 진보적이고 보편적인 세계관을 이루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가지 모순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진보적 경향에 대한 봉사를 그 주요한 본질로 하여 온 리얼리즘의 전통이 제3세계의 가장 민감한 예술 속에서 자기자신을 새롭게 발견

---

12 김종철, 「흑인혁명과 인간해방」, 『시와 역사적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78.

13 김종철, 「식민주의의 극복과 민중」, 『프란츠 파농 연구』, 한마당, 1981.

14 김종철, 「제3세계의 문학과 리얼리즘」, 『제3세계 문학론』, 도서출판 한벗, 1982.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말한다. 그도 백낙청처럼 ‘보편적인 세계관’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의 논의는 ‘대안적 근대’에 대한 구체적 고민의 단초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변별된다.

민중문화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3세계의 문학과 예술은, 본질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소시민 지식인의 관점에 크게 의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서구 시민문학과 예술의 전통과는 뚜렷이 구별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문화의 전통 일반에 속하고 있으면서도 이 전통에 포함된 부정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인 중요한 흐름을 우리가 간과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우리는 리얼리즘의 전통이라는 각도에서 보아도 좋을 것이다.(중략) 이미 유럽문학의 흐름에 대하여 일정하게 역사적인 이해와 평가를 시도한 여러 중요한 비평 속에서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는 적어도 그것이 시민문학의 진보적 경향을 대변하는 문학을 가리킨다는 점에서는 큰 오해의 여지를 남겨 두지 않을 만큼 충분히 분명하게 사용되어 온 셈이다.<sup>15</sup>

김종철은 리얼리즘의 근본성격이 객관적 세계인식에 근거하여 인간다운 삶에 대한 강한 정열을 보여주는 예술경향이라고 한다면, 제3세계 문학의 가장 근본적인 요구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제3세계 내부에 존재하는 비민주적.봉건적 요소와의 투쟁을 위해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민족주의의 극복을 위해서도 리얼리즘의 긴장은 필요하다. 주목할 부분은 김종철이 ‘민족’을 바라보는 태도이다. 그는 “제3세계적 관점은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보는 긴장된 의식을 요구하며, 신성불가침한 초역사적인 실체로서의 민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이에 덧붙여 “민족이라는 신화적인 실체를 때때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민족주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집단으로서 특히 나쁜 운명을 공동으로

---

15 위의 책, 36면.

겪어 온 역사적 체험이 바탕이 되어 그 운명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서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불가피하게 도입된다는 것은 제3세계적 관점에서 볼 때 훨씬 쉽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sup>16</sup> 이는 주목할 만한 견해로 평가할 수 있다. 제3세계가 안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민족주의에 대한 해석과 함께 해명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억압의 과정에서 구성된 정체성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제3세계를 보편주의 일반으로 끌어올리려는 성급한 태도에서 한발짝 물러나, 제3세계가 ‘공격적 민족주의’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서구 제국주의가 제3세계에 부가한 나쁜 운명의 영향이며, 그 나쁜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주체적 시도가 ‘제3세계 문학론’에 담겨질 수 있다는 논의이기도 하다.

논의의 전개 과정에서 영문학자답게 김종철은 솔직한 태도를 취한다. 그는 성급하게 제3세계 문학의 현실로 육박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서구 사회 내부에서 그 부정성을 증언하는 흑인 작가들의 작품으로 논의하는 우회로를 선택한다. 그가 주요하게 다룬 작가는 미국 흑인문학의 대표작가로 꼽히는 리차드 라이트다. 김종철은 라이트의 작품과 문학론을 통해 서구 시민문학의 진보적 리얼리즘이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점차 민중의 배반하는 경로로 진행되었음을 드러낸다. 김종철은 서구 리얼리즘의 파탄을 리얼리스트들 자신의 개인적인 한계이기 이전에 시대의 한계였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이후 전개될 제3세계의 리얼리즘은 서구 문학이념의 한계였던 ‘민중적 기반으로부터 유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가 보기에는 “인간성의 온전한 발현을 위한 탐구수단으로서의 성장문학 그리고 리얼리즘 문학이 그 본래의 성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인간적인 가치의 만연에 의해 오랫동안 망각되어 온, 역사와 인간 및 예술에 대한 생생한 태도가 새로운 차원에서 성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sup>17</sup> 이러한 가능성은 ‘제3세계 리얼리즘’에 있다는 것이 김종철의 주장이다.

김종철의 논의가 가지는 의의는 리얼리즘의 진보성을 인정하면서도 서구 문학이념의 전개와 제3세계 리얼리즘의 전개방향은 달라야 한다는 신념의 제시이다. 이는 한국의 민족문학의 흐

---

16 위의 책, 38면.

17 위의 책, 74면.

름 속에 존재하는 ‘리얼리즘’ 논의와도 연결돼 있다. 김종철이 애써 라틴 아메리카에 존재하는 ‘초현실주의적 경향’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이는 민중생활의 실감을 보다 깊이 호흡하는 결과라고 말해 강하게 리얼리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도 주목을 요한다. 제3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억압적 양태는 결국 현실 극복의지로 발현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서구식 문명에 의해 형성된 신념체계·사상·이데올로기에 대한 근본적 탈바꿈이 필요하다는 급진적 사고가 자리하고 있다. 그는 이반 일리치를 인용하면서 서구적 의식과 감수성에 침윤되어 있는 ‘제3세계 지식인들의 경험 세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기도 하고, 서구 시민사회가 “물질적 세력의 맹목적인 자기전개”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따라서 김종철이 생태학적 사고로 나아가는 계기에는 제3세계적 인식에 기반한 리얼리즘에 대한 긍정과 더불어 서구 산업화에 대한 근본적 부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3세계문학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을 통해서 한국비평담론은 독자적 발전경로에 대한 가능성이 일어나갔고, 주체적 문학이론의 형성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물론, 민족문학론을 중심으로 한 리얼리즘론과 제3세계문학론의 결합이었지만, 백낙청의 논의에 따르면 “제3세계의 민족문학이 그 자체로서 어느 누구도 추종할 필요가 없는 독자성과 선진성을 주장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18</sup> 백낙청의 제3세계 문학론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부여는 “민중의 입장에서 세계 역사를 하나의 역사”로 보려는 태도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통 큰 이론적 면모를 보이는 것이면서 동시에 보편적 이상에 충실하고 있어 세계체제에 대한 적극적 비판의 역할을 하기에는 무디다는 인상을 보인다. 반면, 김종철의 논의는 백낙청의 이론적 입론을 충실히 따르는 듯하면서도 좀더 급진적이다. 김종철은 래리 닐의 글을 인용해 “세계 위기라는 문맥 속에서 윤리와 미학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여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더불어 예술운동은 “압박받아온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윤리적”이라는 것으로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력한 언어로 이야기한다.<sup>19</sup> 이러한 김종철의 입장은 ‘문학을 통해 위안거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

---

18 백낙청, 「제3세계와 민중문학」, 앞의 책, 47면.

19 김종철, 「제3세계의 문학과 리얼리즘」, 앞의 책, 75면.

라. 문학의 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객관적인 관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문학을 한다는 것과 닮아 있다. 즉, 백낙청의 논의가 보편성에 대한 강박에 어느정도 포박되어 있었다면, 김종철은 백낙청의 논의에 입각한 글을 써나가면서도 보편성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를 곳곳에서 내비친다. 그 보편성이 아직 '제3세계'가 경험하지 않은 것이었다면, 오히려 '보편성'을 거부하는 것이 훨씬 제3세계적이다. 제3세계 문학론은 서구의 보편주의 문학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구문학이 가보지 못한 길을 개척하려는 대안적 문학론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김종철의 논의가 갖고 있는 '(서구적) 보편주의에 대한 거부'의 태도'에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 3. 아이러니의 미학, 혁명적 낭만주의와 비극적 세계관

1980년대 노동소설은 노동자 출신 작가의 작품, 혹은 노동현장에 투신한 대학생출신의 작가들의 문학적 성취라는 측면에서 특별히 주목을 요한다. 그래서 1980년대 노동소설은 '운동지향의 노동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다. 1980년대 노동소설은 '노동계급의 입장(당파성)'을 강조하면서도 '계급이기주의'를 비판하는 이중적 시선을 취했다. 그런가 하면, 몇몇 작품은 선취된 이념을 절대시함으로써 관념적이면서도 급진적인 계급주의적 면모를 보였다. 당파성에 대한 미묘한 입장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노동계급의 당파성을 강조할 때, 지식인은 '소부르주아적 습성'을 떨쳐버리지 못한 부유(浮游)하는 계급이 된다. 하지만, 노동소설을 쓰는 작가는 '글로써 노동한다'는 측면에서 지식인 노동자의 위치에 서 있다. 노동과 소설 사이에는 기묘한 자기분열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소설에 나타난 노동자의 정체성 문제는 바로 이 균열을 추적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한국 대학생들은 '대학교육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대학생활을 했다. 이들은 산업화와 고도성장이라는 급격한 '근대성의 기반 획득' 과정에서 부모세대의

근검절약을 담보로 대학에 진입한 경우가 많았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대학생살을 했던 이들은 부모세대가 획득한 부를 향유했다. 그래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서 사회현실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고, 더불어 '부모세대에 대한 연민'을 내면화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식과, 부모세대가 감내해야 했던 부조리한 현실을 변혁해야 한다는 인식이 윤리적 갈등을 유발시켰다. 이 딜레마적 상황으로 인해 1980년대 사회운동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근거지를 확보했다.

대학제도의 변화도 1980년대 대학생들의 인식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980년에 이른바 '7.30 교육개혁'으로 실시되어 1987년까지 시행된 '졸업정원제'는 대학생들의 특권적 지위를 흔들어 놓았다. 특수 계층, 혹은 선택받은 계층으로 간주되었던 대학생들은 대학졸업정원제로 인해 교육환경이 악화와 교육의 질 저하를 감내해야 했다. 무엇보다 대학교육의 대중화가 1980년 대학 졸업정원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력 자본의 약화는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에서 대학졸업이 보장해 줄 수 있는 입지를 축소시켰다. 더불어 1980년 5월 광주의 억압함으로써 탄생한 부정한 정권에 대한 저항의식이 사회체제에 대한 저항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83년 학원자율화조치를 계기로 대학내에서 상대적 자유의 숨통이 틈었고, 그 이전에 노동현장을 택한 '학생출신(학출) 노동자'와의 연대 가능성이 넓어졌다. 여기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학출 노동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생활동가들은 '전국민주노동운동연맹'을 통해 이미 1980년부터 노동운동가와 조직적으로 연대하려 했다. 1980년 초에는 경인지역의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노동야학과 대학생들의 공활(방학을 이용해 공장에 취업해 하는 활동)이 이뤄지기도 했다.<sup>20</sup> 한발 더 나아가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학생신분을 버리고 노동현장에 투신한 경우가 '학출 노동운동가'들이다. 대학생들은 1985년을 전후해 '서울노동운동연합', '인천지역노동자연맹', '안양지역 노동3권 쟁취위원회' 등의 활동을 거친 후 점차 '학출 노동운동가'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정점에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

20 허상수, 「정치사회적 저항담론과 변혁주체 논쟁 - 노동계급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의 정치사회적 저항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조희연 편), 함께읽는 책, 2004, 287~288면.

이 발생했다. 1980년대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실천적인 대학생들은 이제까지의 자신과는 다른 정체성을 욕망했다. 무엇인가 다른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망 속에서 '계급 전이의 가능성'을 '노동자계급'에서 발견한 것이다.

그렇다면 1980년대 '운동+문학'은 어떻게 작품과 만났던 것일까? 1980년대 노동소설의 작가들은 대부분 대학생 출신이었다. 198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인 정화진, 방현석, 안재성 등이 대표적이다. 정화진은 서강대학교 영문과 출신이었고, 방현석은 중앙대 문창과 출신이었으며, 안재성은 강원대 축산과를 다녔다. 이들은 대부분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노동현장에 투신한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노동현장에서 소설을 창작해 발표하기도 했다. 최초 대학 진학시 문학전공을 희망했다가 자기결단을 통해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이들이, 다시 소설을 통한 운동의 실천으로 접어든 것이다. 노동자로서 정체성의 전이과정을 거친 이들은 현실운동 내에서 '소설의 통한 운동의 다원적 전개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에 부응해 노동소설의 양적 팽창을 촉진했던 것이다. 게다가 1986~1988년에 유래 없는 3저 호황을 겪으면서 한국사회는 급격한 문화영역의 확장을 경험했다.<sup>21</sup> 실제로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인한 임금인상을 한국사회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3저 호황의 영향이었다. 문화연역은 상당부분에서 경제영역을 포함한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위에서 언급한 배경사적 맥락과 더불어 1980년대 후반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문학의 활발한 '운동화' 가능성을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취를 보인 것이 방현석의 '노동소설'이다. 그의 노동소설은 1980년대의 사회적 분위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에 오히려 미학적 결함이 있다는 비판을 받곤 했다. 그의 소설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적대적 대립구조, 파업 현장을 중심으로 한 사건의 전개, 노동자 이외의 계층에 대한 스테레오타입(stereotype)화된 접근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데올

---

21 1979년 오일쇼크에 이은 경제공황 이후 1980년대 초반 전두환 정권은 축적위기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노동법 개정과 산업의 재조정과 통폐합, 설비투자의 전환 등)으로 해결했다. 이어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이른바 3저호황(저금리, 저유가, 저물가)으로 인한 소비의 폭발적 증가가 이어졌다. 이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것이며, 더불어 88서울 올림픽의 영향이기도 하다. 이때부터 상대적 빈곤에 대한 한국사회의 전반적 자각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로기적 강박으로 인해 노동자계급을 객관화해 형상화하지 못하고, 노동자 당파성이라는 낭만적 주관주의에 빠져들었다는 것이 방현석 소설에 가해지는 비판이다. 실제로 방현석의 1980년대 노동소설에 등장하는 자본가는 대부분의 도식화되어 있다. 그의 소설 속 노동자들은 다성성(duality)을 지닌 갈등하는 인간임에 비해, 자본가는 교활하고 탐욕적이며 이기적인 인물로 그려졌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방현석 소설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적 상황에 비춰볼 때 그의 소설은 몇가지 중요한 미학적 성취를 이뤄내고 있다.

우선, 방현석의 소설은 ‘승리적 관점에서 노동자의 투쟁’을 형상화하고 있지 않다. 그의 소설은 대부분 ‘패배’나 ‘절망’ 이후의 상황에서 시작되고 있어 특징적이다. 「내딛는 첫발은」(1988)<sup>22</sup>은 노조간부들이 모두 구속돼 노조가 와해 직전에 있는 상태에서 서사가 시작되고, 「새벽출정」(1989)<sup>23</sup>은 세광물산 여성 노동자들이 100일이 넘는 장기농성으로 하나 둘 직장을 떠나가는 장면이 도입부로 설정되어 있다. 또 「내일을 여는 집」(1990)<sup>24</sup>은 장기간 복직투쟁 중인 해직노동자 성만이 새로운 회사의 취직하려 하지만 거부되는 장면이 소설 초입에 배치되어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처음부터 참담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들은 모두 과거에 화려한 승리의 경험을 했거나, 풍부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노동자로서 주체적 인식에 도달한 경험을 안고 있다. 「내딛는 첫발은」은 지난 여름 열흘의 파업으로 임금인상을 쟁취한 적이 있는 부흥주식회사가 서사의 배경이다. 부흥주식회사 노조는 노동자들의 신뢰를 듬뿍 받았던 조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의 탄압으로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이 더 많아’지는 지경에 이른다. 「새벽출정」의 세광물산도 선흥정밀의 도움으로 합법노조를 설립했고, 「내일을 여는 집」의 성만도 성찰적 면모를 갖춘 선진 노동자로 활동했던 과거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모두 패배 이후에 다시 일어서 ‘희망’을 만들려고 몸부림친다.

다음으로 방현석의 노동소설은 ‘정체성의 변화’에서 ‘운동주체의 전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

22 방현석, 「내딛는 첫발은」, 『실천문학』 1988년 봄호, 실천문학사.

23 방현석, 「새벽출정」, 『창작과 비평』 1989년 봄호, 창작과비평사.

24 방현석, 「내일을 여는 집」, 『창작과 비평』 1990년 봄호, 창작과비평사.

끌어안고 있다. 초기의 노동소설은 어떤 식으로든 ‘학출 노동운동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방현석의 노동소설에는 좀처럼 ‘지식인 노동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현장은 이른바 ‘학출 노동자의 선도투쟁’에서 ‘각성한 노동자의 일상투쟁’으로 투쟁의 양상이 변했다. 지식인 인텔리겐차의 운동에서 노동자 대중운동으로 주체가 이동한 것이다. 이 와중에서 노동자들은 숭한 패배의 경험을 하게 되었고, 투쟁의 과정에서 보다 강한 주체로 거듭났다. 방현석은 소설 속에서 이러한 상황은 포착해 서사화하고 있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애새끼들은 쫓 대로 쫓아 있으니.”

색상실의 구성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럴 때 사무장이나 교선부장이 있어야 하는데 말야.”

“한 명만 있어도 어떻게 될 텐데.”

“하나마나한 소리지 병신아, 있으면 이려고 있냐.”

정우의 말에 민웅이 면박을 줬다.

“사무장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얘가지, 괜히 트집이냐.”

“면회 가서 물어보고 오지 그러냐, 병신아.”

“저게 말끝마다 병신이야. 야이 병신아, 면회를 시켜줘야 물어보고 오지.”<sup>25</sup>

「내딛는 첫발은」에 등장하는 노동자들은 지난 여름에 노조위원장과 사무장의 지도 아래 ‘파업농성을 완전한 승리’로 이끈 경험을 갖고 있다. 하지만, 회사와 대공과 형사의 집요한 탄압으로 노조위원장과 사무장은 구속되고, 교선부장은 해고되고 만다. 선도투쟁을 이끌었던 핵심 지도부가 붕괴된 이후 현장 노동자들이 급격히 동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 노동자들은 “똑똑한 놈 몇 놈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착각인가를 똑똑히 보여줘

---

25 방현석, 「내딛는 첫발은」, 앞의 책, 123면.



야” 한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설프기만 하다. 노조 부위원장 용호가 ‘조용히 사는 삶’을 은연중 바라는 패배주의에 빠져들자, 노조는 급격히 혼란에 빠지고 만다. 「새벽출정」도 각성한 노동자였던 철순의 죽음으로 일시적인 승리를 쟁취한다. 하지만, 철순의 민주노동열사장 장례식이 끝나고 28일간의 파업농성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회사의 적대행위가 시작된다. 철순은 노조위원장 미정과 노조회계감사인 민영 등을 조직화해 노조를 결성하게 한 장본인이다. 그가 파업투쟁 도중 현수막을 공장 굴뚝에 걸다 사고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다. 미정과 민영은 철순이 없는 상태에서 철순이 꿈꾸었던 “노동자의 눈물 없는 해방의 새날을 위해” 투쟁하게 된다. 「새벽출정」도 투쟁을 지도하던 선도적 노동자를 잃은 이후의 150일간이라는 지난한 투쟁을 형상화하고 있다.

더불어, 방현석이 낮은 곳에서 시작해 조그만 성취도 돋보이게 하는 소설적 장치를 구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방현석은 ‘학출 노동운동가들의 정체성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이룩한 성취를 현장 노동자들이 새로운 계급각성 과정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인식을 곳곳에서 표현한다. 그는 ‘노동자 되기’의 욕망을, 노동자의 의식과 일상에 대한 밀도 있는 형상화를 통해 ‘미학적으로 변형’함으로써 성취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의 소설에는 지식인 노동자나, 학출 노동자가 멀찌감치 떨어진 후면에 배치된다. 그의 소설 속 화자는 지식인의 냄새와 색깔이 드러나지 않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그의 소설이 비장미를 획득하고 있는 주요한 요인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이라는 담담함 때문이다. 머나먼 여행의 초입에 들어선 이의 발걸음은 경망스럽지 않으며, 조급하게 하지도 않다. 전망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은 있지만, 결정된 목적지가 분명히 제시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방현석 소설은 노동계급 내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한정 소재를 다루면서도, 결코 승리적 관점이라는 낭만주의적 태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가 바라보기에 노동자들의 투쟁은 앞으로 지난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주체의 각성 과정’이기 때문이다.

주체화 과정은 ‘계급적 정체성’의 영역을 벗어난, 인간의 보편적 인권과 존엄성 발견과정일 수 있다. 이런 인식이 방현석으로 하여금 가장 아래인 바닥으로부터 서사를 끌어올리는 상황

설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삶의 굴곡을 각자의 방식으로 내면화한 인물들이 상승과 하강을 동시에 경험함으로써 서사의 긴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정으로 인해 방현석 소설은 노동자들이 비참한 현실, 부조리한 현실을 인식해 가는 과정에서 시작하는 정화진의 소설과 변별된다. 그의 소설은 가장 비참한 상태, 힘겹게 쌓아올린 노동자 주체의 자기 인식이 현실적 장벽에 의해 다시 무너질 위기에 처한 바로 그곳에서 출발한다. 이는 소설의 서사구조 속에서 구축과 해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약동하는 소설서사는 직선적이지 않고, 굴곡 많은 곡선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내딛는 첫발은」과 「새벽출정」의 경우도 시간 구성이 현실과 과거를 넘나드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시간 구성으로 인해 소설의 서사는 미래에 대한 직선적 인식(혹은 승리적 관점)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단순한 계단적 상승이 아니라 오르내림이 있는 언덕들로 이뤄진 서사는 곡선적이다. 방현석 소설은 서사의 미적 구성을 위해 이러한 곡선과 언덕들을 역사 속에 투영시킴으로써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현실을 포용해 낸다.

하지만, 그의 서사는 계급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내딛는 첫발은」은 갈등하는 노동자인 정식의 결단을 통해 노조의 투쟁이 극적 반전을 이루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새벽출정」의 경우도 150일간의 투쟁 끝에 65명의 노동자들이 ‘구속을 각오’하고 ‘점거농성’을 위해 출정하는 장면에서 끝을 맺고 있다. 그의 소설의 결론이 ‘혁명적 낙관주의’와는 무관하게 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내딛는 첫발은」과 「새벽출정」의 결말은 또 다른 좌절로 이어지리라는 비장미를 동반한다. 이는 80년대 이래 지속돼온 노동자들의 위치, 혹은 결코 손쉽게 얻어질 수 없는 사회의 복잡하고 완고한 벽을 예시적으로 보여준다. 지식인의 노동자 되기는 ‘자기해체’의 아픔을 수반한다. 이 자기 해체 과정을 예시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방현석 소설을 비롯한 1980년대 노동소설은 ‘문학적 긴장’을 간직하고 있다.

#### 4. 선언과 연대 사이에서, 추상에서 구체로

급진적 지식인은 ‘자기부정’ 혹은 ‘자기 계층에 대한 배신’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뿌리 없음, 혹은 뿌리에 대한 당당한 거부를 통해 ‘횡단(가로지기)’하는 주체로 거듭났다.

문학 또한 계기적 단절과 반복을 거듭해 왔다. 이 술한 반복과 단절 속에서 문학은 운동성을 지속시켜 왔고, 억압에 대한 언어적 저항을 수행하기도 했다. 1980년대 ‘운동+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내면적 성찰’을 동반한 사회변혁을 위한 문예미학적 급진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문학에 나타난 역사적 경험의 서사화, 곡선적이고 굴곡적인 인간사의 형상화는 분명한 미적 성취로 재해석되고, 재평가할 수 있다.

1980년대 ‘제3세계 문학론’과 ‘노동문학’은 그간 1970년대와 1980년대 문학을 단절적으로 사고하려는 경향을 ‘연속과 단절’의 효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전체를 아우르는 문학비평론의 핵심에는 ‘민족문학론’을 중심으로 한 ‘리얼리즘론’과 ‘제3세계 문학론’이 있었고, 실제 텍스트의 성취로는 ‘노동소설’이 존재했다. 그렇기에 ‘제3세계 문학론’과 ‘노동소설’이 차지하는 위치는 독특할 뿐만 아니라, 이후 한국문학에 미친 영향도 속고 되어야 한다.

우선, 1980년대 문학은 서구 중심의 문학론에 대한 충격적 성찰을 촉발시켰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이전의 한국문학 이론은 서구 담론의 한국적 해석, 한국적 이식에 자신을 가둔 형국이었다. 하지만 ‘운동+문학’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면서 주체적 문학이론의 가능성이 싹트기 시작했다. 한국적 현실과 모순에 기반해 한국문학의 과제를 설정하려는 노력은 ‘추상에서 구체로’ 나아가는 이론의 일반적 발전 경로를 반영한다. 그 구체적인 노력의 과정에서 민족문학과 자민족중심의 민족주의 문학론을 구별하려는 노력이 싹텄고, 리얼리즘 이론을 한국적 현실에 적용하려는 실천적 노력이 이뤄졌다. 특히, 제3세계 문학론은 한국 문학비평이 서구중심

의 문학담론에서 벗어나, 서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다음으로, 1980년대는 ‘운동+문학’이 담론과 실제 텍스트로 연결되면서 한국문학의 급진화에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작가들의 인식 기반에는 세가지의 상이한 분석틀이 존재했다. 사회과학계에서 논의된 근대화이론, 종속이론, 생산양식이론 등이 그것이다. 특히 종속이론과 생산양식이론은 사회구성체 논쟁의 핵심적 인식 구조였다. 1980년대 후반 문학론이 민중적 민족문학론, 민주주의 민족문학론, 민족해방 민족문학론, 노동해방 문학론 등으로 분화된 것도 인식의 기반을 어느 곳에 두느냐의 문제였다.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에는 한국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급진적 문학론’의 영향이 컸다.

더불어, 구체적 텍스트의 성과로는 방현석의 ‘노동문학’을 거론할 수 있다. 방현석은 ‘패배 이후’로 소설의 도입부를 설정해 수난의 서사를 예견하게 한다. 학생운동권 출신으로서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작가는 내면의 무의식 속에서 ‘혁명적 낙관주의’를 배제하고 있다. 세계에 대한 비극적 인식과 성장하는 노동자 의식 사이의 차이는 아이러니 효과를 자아낸다. 「내딛는 첫발은」은 정식의 분노로 노동운동을 외면했던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에 동참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그 투쟁이 승리하리라는 낭만적 전망은 짙은 어둠 속에 묻혀 있다. 「새벽출정」에서도 65명의 여성 노동자가 투쟁을 위해 어디론가 떠나간다. 그들의 투쟁이 또 다른 좌절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비장미가 텍스트 전반에 흐르고 있다. 이는 80년대 이래 지속돼 온 노동자의 계급투쟁이 낭만적 기대로만 충만할 수 없음을 인식한 지식인의 무의식이 텍스트에 스며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 문학은 상당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2000년대에 이르러 담론에서 실제로 변모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1987년 한국 내부의 형식적 민주주의의 확대와 베를린 장벽 붕괴 및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는 변혁론 중심의 급진적 문학론이 더 이상 진전된 논의를 할 수 없는 외적 요인을 제공했다. 갑작스런 인식론적 단절은 한국문학의 내면화 경향을 부추겼고, 담론 지형 또한 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은 ‘아시아 아프리

카 문학' 논의의 핵심적 주제로 부상했다. 1997년부터 민족문학작가회의는 '세계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베트남.팔레스타인.나이지리아와 같은 작가를 적극적으로 초청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작가들이 직접 나서서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 '팔레스타인을 잇는 다리' '인도를 생각하는 예술인 모임'을 결성해 적극적으로 해외작가를 초청하기도 하고, 해외로 나가 세계체제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다. 한국문학의 서구중심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은 1980년대 '운동+문학'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통해 더 명료한 실체를 형성하게 된다. 2000년대에 이르러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아시아.아프리카 작가들과 교류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아시아.아프리카 작가 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작가들이 대부분 1980년대에 등단해 활동한 시인.소설가들이라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작가로 김형수.김남일.방현석 등을 꼽을 수 있다.